

삼국유사 기이편 "수로부인"조에 근거한헌화가(獻花歌)와 해가(海歌) 배경지 추정에 관한 연구

The Estimation on the Background Place of Heonhwa-ga(獻花歌) and Hae-ga(海歌) Based on the Suro-buin(水路夫人) Item, Giyi(紀異) part in Samgukyusa(三國遺事)

저자 (Authors)	전영권 Young Gweon Jeon
출처 (Source)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 , 2014.2, 92-100 (9 pag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20(1) , 2014.2, 92-100 (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지역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95055
APA Style	전영권 (2014). 삼국유사 기이편 "수로부인"조에 근거한헌화가(獻花歌)와 해가(海歌) 배경지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 92-10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30 15: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유사』 기이편 ‘수로부인’조에 근거한 헌화가(獻花歌)와 해가(海歌) 배경지 추정에 관한 연구*

전 영 권**

The Estimation on the Background Place of Heonhwa-ga(獻花歌) and Hae-ga(海歌) Based on the Suro-buin(水路夫人) Item, Giyi(紀異) part in Samgukyusa(三國遺事)*

Jeon, Young-Gweon**

요약: 『삼국유사』 ‘수로부인’에 나오는 ‘헌화가’의 배경 설화를 토대로 헌화가와 해가의 배경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추정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헌화가 배경지는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지경전 골곡포(骨谷浦) 부근 암석단애지 일대로 판단된다.
- 2) 해가 배경지(암해정 옛터)는 헌화가 배경지인 골곡포에서 이틀거리(약 60km)에 위치하는 울진의 월송정 일대로 판단된다.
- 3) 일부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헌화가 배경지와 해가 배경지는 지자체들의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 차원에서 설정된 경향이 강해 설득력이 없다.

주요어: 수로부인, 헌화가 배경지, 해가 배경지, 골곡포(영덕군), 월송정(울진군)

Abstract: This paper aimed to estimate Heonhwa-ga(獻花歌) background place, Hae-ga(海歌) background place based on the Heonhwa-ga background narrativ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1) Heonhwa-ga background place is judged as the area of the rock cliff and its suburbs in Golgok-po(Jigyeong-cheon Bugyeong-ri Namjeong-myeon, Yeongdeog county).
- 2) Hae-ga background place is judged as the area of the Weolsong-jeong in Uljin county, which is located in two day's distance(about 60km) from Heonhwa-ga background place.
- 3) Some local governments tend to estimate Heonhwa-ga background place, Hae-ga background place from the viewpoint of place marketing. So such judgement of those local governments is not persuasive.

Key Words: Suro-buin(woman), Heonhwa-ga(獻花歌) background place, Hae-ga(海歌) background place, Golgok-po(Yeongdeog county), Weolsong-jeong(Uljin county)

1. 서론

『삼국유사』 권(卷)2 기이편(紀異篇)의 ‘수로부인(水路夫人)’에 나오는 헌화가(獻花歌)와 해가(海歌)는 4구체 향가로 그 내용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헌화가 배경설화를 비롯해 헌화가와 해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향가 자체의 내용 해석과 내용이 의미하는 또 다른 상황에 대한 추정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는 국문학적 관점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화가나 해가의 배경지에 해당하는 장소적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동해안을 따라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순정공과 수로부인의 행차를 신라시대 주 교통로인 오통(五通)과의 관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오통의 노선 중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북해통(한정훈, 2003)을 대상으로 지형적 특성과 파악해보고 이를 토대로 헌화가와 해가의 배경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먼저 헌화가의 배경설화와 헌화가 그리고 해가의 원문과 이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jeonyg@cu.ac.kr)

聖德王代 純貞公赴江陵太守(今溟州) 行次海汀 謁 饋 傍有石嶺 如屏臨海 高千丈 上有躑躅花盛開 公之夫人水路見之 謂左右曰 折花獻者其誰 從者曰 非人跡所到 皆辭不能 傍有老翁牽牛而過者 聞夫人言 折其花 亦作歌詞獻之 其翁不知何許人也

便行二日程 又有臨海亭 書饋次 海龍忽攬夫人入海 公顛倒墜地 計無所出 又有一老人 告曰 故人有言 衆口鑠金 今海中傍生 何不畏衆口乎 宜進界內民 作歌唱之 以杖打岸 可見夫人矣 公從之 龍奉夫人 出海獻之 公問夫人海中事 曰 七寶宮殿 所饋甘滑 香潔 非人間煙火 且夫人衣襲異香 非世所聞 水路 姿容絕代 每經過深山大澤 屢被神物涼攬

성덕왕대에 순정공이 강릉태수(지금의 명주)¹⁾로 부임행차 할 때, 바닷가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옆에는 석봉이 병풍처럼 둘러져 바다에 임해 있었고, 높이는 천 길이나 되며, 석봉 위에는 철쭉꽃이 만개해 있었다. 순정공의 부인 수로는 이를 보고 수행원들에게 말하기를, “꽃을 꺾어줄 사람이 그 누구요?” 수행원들이 대답하기를, “거기는 인적이 이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꽃을 꺾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때,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늙은이가 수로부인의 말을 듣고 그 꽃을 꺾어 가사(歌詞) 또한 지어 바쳤는데, 그 늙은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편하게 이들을 가니 또 바닷가에 정자가 있었다. 다시 점심을 먹게 되었다. 그때 해룡(海龍)이 돌연히 나타나 수로부인을 잡고 바다 속으로 가버렸다. 순정공은 전도되어 주저앉아 버렸고 아무런 계책이 없었다. 또 한 노인이 있어 이르기를, “옛사람들 말에 의하면, 못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했거늘, 바다 속에 사는 짐승인들 어찌 못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경내의 백성을 불러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이 따라 하였더니 용이 바다에서 부인을 받들고 나와 공에게 바쳤다. 공이 부인에게 바다 속의 일을 물으니, 부인이 말하기를, “칠보궁전에 음식은 맛짱스럽고 향기로우며 깨끗해 인간세상의 음식이 아닙니다.” 또 부인의 옷에서는 특이한 향기가 나, 인간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향기였다. 수로부인의 자태나 용모는 출중하여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면 자주 신물들에게 붙잡히곤 했다 「현화가 배경 설화」.

紫布岩乎邊希 執音乎手母牛放教遺 吾盼不喻懶盼

伊賜等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

자춘빚 바위 가에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현화가」.

龜乎龜乎出水路 掠人婦女罪何極 汝若悖逆不出獻 入網捕涼播之喫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 놓아라. 사람의 부녀자를 빼앗아간 죄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네 만약 도리에 거슬러 내 놓지 않으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으리라 「해가」.

2. 장소 추정

암소를 몰고 가던 늙은이가 수로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친 장소와 해룡이 수로부인을 납치해간 장소 고증에 필요한 자료나 근거는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의 ‘수로부인(水路夫人)’에 나오는 ‘현화가 배경 설화’의 내용이 전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현화와 해가의 배경지에 대한 장소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우선 장소 추정에 필요한 단서가 될 만한 내용들을 현화가 배경 설화에서 찾아보았다.

1) 장소 추정을 위한 자료 발굴

첫째, 신라 33대 성덕왕(재위 기간: 702~737년) 당시 순정공이 수로부인과 함께 경주에서 강릉 태수로 부임하기 위해 강릉으로 행차하는 중이었다.

둘째, 순정공과 수로부인 일행은 점심을 먹으러 해안가로 갔으며, 점심을 먹고 있었던 곳 주변에는 높은 바위 절벽과 절벽 위에는 철쭉꽃이 만개해 있었다.

셋째, 수로부인은 석봉 위에 만개한 철쭉꽃을 수행원 중 누군가 꺾어 주기를 원했으나, 수행원 모두가 가파른 바위 절벽 위에 피어 있는 철쭉꽃을 꺾으러 가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넷째, 그 때 일행 부근으로 암소를 몰고 지나가던 늙은이가 이 말을 듣고 늙은이 자신이 꺾어주겠다고 하면서 철쭉꽃을 꺾어와 현화를 지어 바쳤다.

다섯째, 수로부인이 늙은이로부터 꽃을 받은 곳(현화가 배경지)에서 편하게 이들을 간 다음 점심

무렵, 다시 바닷가에 있는 정자(임해정)에서 순정공과 수로부인 행차가 점심을 먹기 위해 그곳을 들렀다.

여섯째, 그때 수로부인의 아름다운 자태와 용모에 반한 해룡이 바다에서 나와 수로부인을 붙잡아 바다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일곱째, 순정공은 진도되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이때 또 다시 한 노인이 나타나 옛 사람들의 말을 전하면서 수로부인을 구해 내는 방안을 알려준다. 즉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구할 수 있다는 말에 순정공이 그대로 행하였다. 이때 경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른 노래가 해가이다. 그리자 해룡이 수로부인을 모시고 바다에서 나와 순정공에게 바쳤다.

여덟째, 순정공은 바다 속 용궁으로 잡혀갔던 수로부인에게 바다 속의 이야기를 물었다. 수로부인이 하는 말이 "철보궁전이 있었고, 그 안에서 맛있고 향기로운 깨끗한 음식을 먹었는데, 인간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수로부인의 옷에서는 인간세상에서 결코 맡아보지 못했던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아홉째, 원래 수로부인은 출중한 자태와 용모를 지닌 탓에 늘 깊은 산과 큰 못을 지날 때 마다 신물(神物)에게 붙잡혀 갔던 것으로 전해온다.

2) 장소 추정을 위한 자료 분석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주를 출발해 강릉으로 강릉태수 부임을 위해 행차하고 있었던 순정공과 수로부인의 행로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현화가 배경 설화 외에는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장소 추정을 위한 판단근거가 제한된 상태에서 올바른 장소 고증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통일신라 당시 주 교통로인 오통(五通)을 지형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또한 당시의 상황²⁾을 가정하여 거리, 이동속도 등을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장소 고증에 필요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특히 설화에서 나타난 지형적 특성

이나 행차 시기, 거리 등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여 년 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소 고증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 판단된다. 다음은 현화와 해가의 배경지에 대한 장소 고증을 위해 발굴한 자료를 1차적으로 분석·가공한 내용이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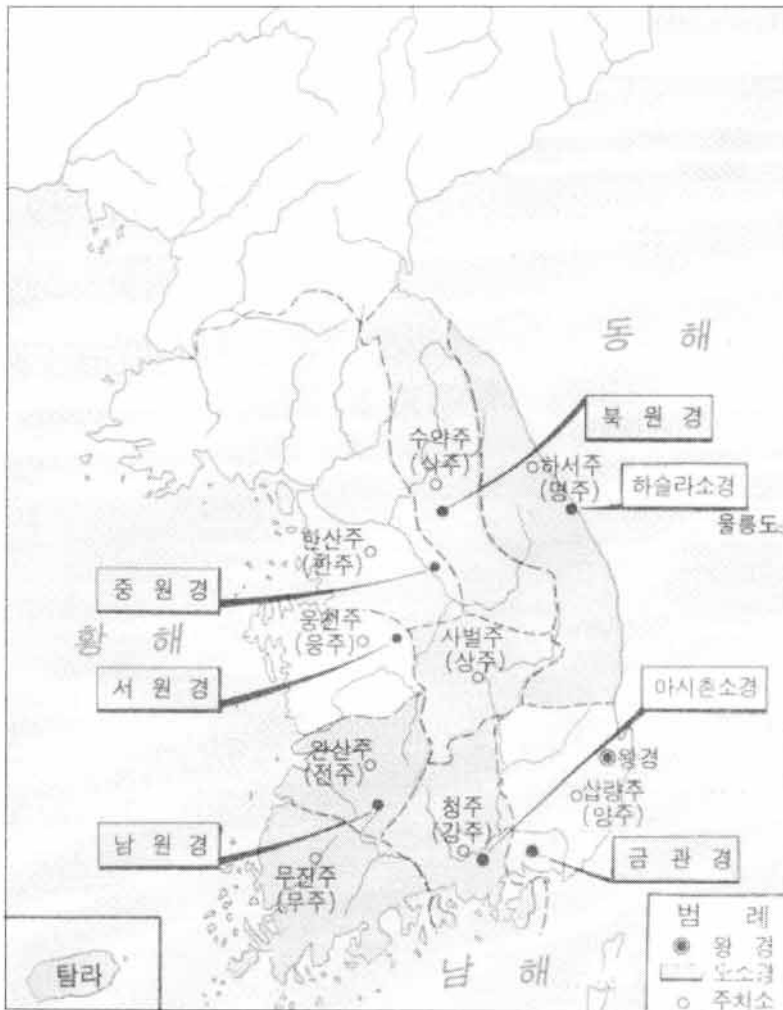
첫째, 순정공과 수로부인 행차는 경주에서 부임지인 강릉으로 가는 행로로 약 300km에 달하는 원거리이다.

둘째, 점심을 먹기 위해 들린 곳은 바닷가로, 바닷가 주변 풍광은 천 길 낭떠러지의 바위 절벽이 바다를 병풍처럼 둘러싸는 모습의 경관을 보인다. 또한 바위 절벽 위에 만개한 철쭉꽃을 꺾으러 가기에 바위 절벽은 매우 험준하여 사람이 갈 수 없을 정도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항은 해안가에 위치하는 병풍 모양의 해식에 위에 철쭉꽃이 피어 있는 5~6월로 판단된다.

셋째, 순정공과 수로부인 행차가 점심을 먹기 위해 머무르던 곳으로 암소를 끌고 가던 늙은이는 철쭉꽃을 꺾어와 수로부인에게 주면서 현화를 지어 바쳤다. 즉, 점심 무렵 늙은이가 암소를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은 인근에 농토가 존재하였을 것이고, 철쭉꽃이 만개하는 5~6월에 모내기를 하다 잠시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6월은 낮의 길이가 비교적 길어 오전 7시경부터 오후 7시 무렵까지는 걸을 수 있어 적어도 하루에 8~10시간 정도는 걸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강릉태수 부임 행차에 동원된 인원은 순정공과 수로부인은 가마, 말(또는 마차) 등을 이용하고 수행원들은 보행이라 가정할 경우, 순정공과 수로부인을 합쳐 대략 10명 내외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식량·취사 담당이 2~3명, 호위·운반 담당이 4~5명, 수로부인 시녀가 1~2명으로 추정돼 많게는 12명에서 작게는 9명 정도가 행차 인원으로 판단된다. 특히 300km가 넘는 원거리인 관계로 근거리 행차에 비해 인원이 약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늙은이가 꺾어 준 철쭉꽃을 받고 편하게 행차하여 이를 뒤 바닷가에 임해 있는 정자(임해정)에서 일행은 다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이곳은 수로부인이 해룡에게 잠시 붙잡혀 간 곳으로



(출처: 디지털강릉문화대전, 디지털울진문화대전)

그림 1. 통일 신라 9주 5소경

경내 백성들이 모여 해가(海歌)를 지어 불렀던 곳이다. 즉 현화가 배경지로부터 이틀거리에 위치하는 곳이다. 특히 현화가 배경지로부터 해가 배경지까지는 이틀을 편하게 갈 수 있어 험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현화가 배경설화에 기술된 문장 중 '편행이일정<便行二日程>'은 현화가 배경지로부터 편하게 이틀을 간 거리로 해석).

여섯째, 경내라는 의미는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중 하나인 하서주(중심도시: 명주, 지금의 강릉)를 의미한다. 지금의 경북 북부 동해안인 영덕, 울진 등은 통일신라 당시 하서주에 속했다.³⁾

일곱째, 수로부인은 자태와 용모가 출중해 늘

깊은 산과 큰 못을 지날 때 마다 신물에게 붙잡혔다는 기록에서 판단해 볼 때, 경주에서 부임지 강릉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이다. 즉, 건너야 할 크고 작은 강만 해도 약 30여 개에 달해 부임지에 제때 도착하기 위해서는 일행 모두가 태만하지 않고 부지런히 이동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장소 추정을 위한 논리적 전개

삼국통일이 이루어지고 비교적 안정기에 왕위에 오른 33대 성덕왕 시절 신라의 주교통로는 왕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북해통(北海通)·염지통(鹽池通)·

동해통(東海通)·해남통(海南通)·북요통(北僑通) 등 오통이 주된 교통로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건문역(乾門驛)·곤문역(坤門驛)·감문역(坎門驛)·간문역(艮門驛)·태문역(兌門驛)이라고 하는 5문역(門驛)이 있었다(박방용, 1995; 한정훈, 2003). 출발역의 위치는 역의 명칭에서 추정할 수 있다. 간문역의 간(艮)은 북동방향을 의미하므로 북동 방향으로 가는 교통로의 주된 출입역이다.⁴⁾ 즉, 간문역은 북해통의 출발지인 셈이다. 따라서 순정공과 수로부인이 행차했던 경주-강릉 간은 북해통의 노선과 일치한다. 북해통은 경주에서 출발하여 안강(형산강을 따라 이어지는 노선), 흥해, 청하, 영덕읍, 영해읍, 울진읍, 삼척시 원덕면, 삼척시, 강릉시로 이어지는 교통로이다(경주-안강-포항시 흥해읍-포항시 청하면 고현리-영덕군 영덕읍-영해읍-울진군 울진읍-삼척시 원덕면-삼척시-강릉시).⁵⁾



그림 2. 수로부인 행로(동해안 7번 노선과 유사했던 것으로 추정: 다음지도 참고)

즉, 신라는 오통이라는 기본 교통 체계에 5통간을 연결해주는 지선이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유적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 데, 이러한 사실은 북해통의 주 통로가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발달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심현용, 2009: 19-22, 조효식, 2010, 6).

현화가 배경설화의 내용을 토대로 하면 경주를 출발한 순정공과 수로부인 행차는 다소 여유로운 가운데 부임지인 강릉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임지까지의 거리는 약 300km로 낮 시간이 비교적 긴 5~6월이라 하루에 30여 km 이상의 거리를 행차했을 것으로 판단된다.⁶⁾

한편 경주를 출발해 강릉으로 떠난 순정공과 수로부인 행차는 경주를 출발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영덕의 해안가에 당도하게 된다⁷⁾. 본 해안가는 현화가의 배경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영덕군 남정면 부정리 지경천 골곡포(骨谷浦) 부근 암석단애지(중생대 백악기 신라통의 화산암류, 폭 약 1,000m, 해발고도 199m) 일대이다. 골곡포 부근의 본 암석단애는 단애 뒤편으로 옛길이 있었다고 전해온다. 즉, 이곳에 도달한 행차는 마치 깎아지른 듯한 암석단에 위로 철쭉꽃이 만개하였고 바다를 병풍처럼 둘러싸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킬 정도였을 것이다. 게다가 경주를 출발한 지 근 이틀 만에 처음 보는 동해의 탁 트인 시원한 바다여서 느끼는 감회도 남달랐을 것이다. 실제로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경관이 수려한 곳이며 일대에서 이만한 경관을 보이는 곳은 여기뿐이다. 또한 현화가 배경설화에서 표현한 지형적 특성 또한 상당히 부합하는 곳이다.⁸⁾

순정공과 수로부인 일행은 여기서 편하게 이틀을 더 간 다음 점심 무렵 바닷가에 위치한 정자인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다시 쉬기로 한다. 그러나 정자가 위치하는 장소는 절벽도 아니며, 말 그대로 바닷가에 인접한 곳이다. 그렇다면 현화가 배경지로 판단되는 골곡포에서 이틀거리(약 60km 내외의 거리)에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골곡포에서 약 60km 내외의 거리를 보이는 곳 중 일대에서 최고의 경관을 보이는 곳은 관동팔경 최남단에 해당하는 월송정(越松亭)이다. 월송정 안내판에



그림 3. 현화가 배경지로 판단되는 골곡포 부근 바위 절벽(단애 기저부는 거북이 형상을 보여 흥미롭다)

는 '월송정은 신라 때 영랑(永郎)·술랑(述郎)·남석(南石)·안상(安祥) 등 네 화랑이 달밤에 솔밭에서 선유(仙遊)하였고, 예로부터 수려한 경관지로 정평이 나 있었으며, 월국(越國)에서 소나무 묘목을 가

져다 심었다고 하여 월송(越松)이라고 하였다'고 적혀 있다. 한편, 월송정이 위치하는 곳은 주위보다 다소 높아 전망이 좋은 곳에 해당하는 비치리즈(beach ridge)로 절벽이 아니면서도 바닷가에 임해 있어 현화가 배경설화에서 언급된 지형적 특성과 잘 부합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남정면 골곡포 일대의 화산암류로 이루어진 암석단애지 일대는 현화가의 배경지고, 그곳으로부터 약 60km 이상 떨어져 위치하는 월송정은 해가의 배경지로 판단된다.



그림 4. 현화가 배경지(아래)와 해가 배경지(위: 월송정): 다음지도 참고

3. 기존 현화가 배경지⁹⁾로 거론되는 장소에 대한 비판

연구자는 현화가 설화를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 교통로, 이동 수단에 따른 이동 속도 등을 고려하여 현화가의 배경지와 해가 배경지(임해정 옛터)를 추정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미 몇 곳의 지자체에서 현화와 해가의 배경지에 대한 선부른 판단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1) 강릉 현화로: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옥계면 금진리의 6km의 해안도로

강릉시에서 주장하는 현화가 배경지인 심곡리-금진리에 이르는 해안도로 주변의 해안 절벽을 현화가 배경지로 보는 경우다. 특히 이곳의 7번 국도는 '현화로'로 부르고 있다. 주지하듯이 현화가

배경 설화 내용을 보면 현화가 배경지에서 이틀거리에 해당하는 약 60km 이상을 가야 해가 배경지가 나타난다고 하여 순정공의 부임지인 강릉은 아직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 소재하는 심곡리-금진리에 이르는 해안도로 주변의 단애지역을 현화가 배경지로 본다면 거기서 약 60km 이상을 가서 나타날 수 있는 해가 배경지는 강릉지역을 훨씬 벗어나게 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2) 삼척의 와우산 기슭의 현화가 배경지와 해가 배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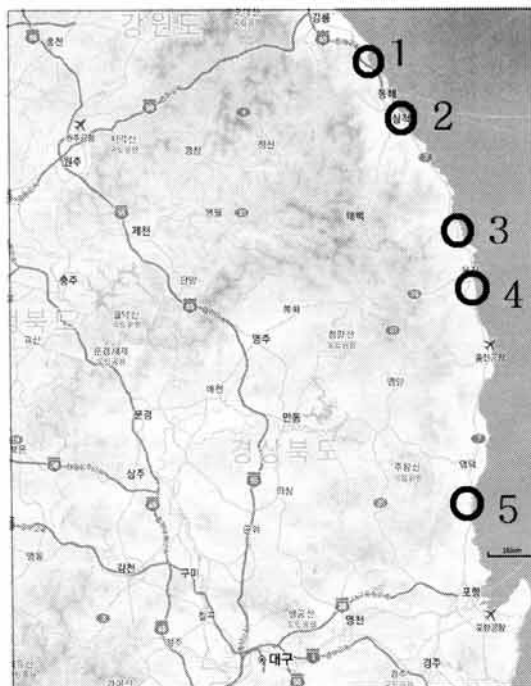
삼척시에서 주장하는 현화가 배경지와 해가 배경지를 삼척시에서는 동일한 장소인 삼척시 증산동 와우산(42.6m) 기슭 일대 해안도로변에 수로부인공원을 조성해두고 있다. 우선 현화가 배경지와 해가 배경지를 동일한 장소에 조성한 것은 현화가 배경설화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설령 해가 배경지를 현화가 배경지로 추정되는 곳에 수로부인 공원조성 차원에서 덧붙였다 하더라도 와우산은 바닷가에 접해 있어 현화가 배경설화에서 언급된 현화가 배경지의 지형적 특성(바닷가에서 약간 떨어져 있고 전면의 바다를 병풍처럼 에워싸듯이 보이는 지형)과는 맞지 않는다.

3) 울진군 산포리, 울진읍 연지리~북면 고포리 일대

울진의 산포리와 울진읍 연지리~북면 고포리 간을 현화가 배경지로 주장하려는 일부의 설은 삼척에서 주장하는 와우산 언덕의 일부를 해가 배경지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삼척의 와우산 기슭은 현화가 배경지나 해가 배경지로 추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삼척시의 주장을 근거를 토대로 추정된 울진의 산포리 역시 논리적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4) 울진군 북면 고포리(현화가 배경지)와 갈남리(해가 배경지)

강원도 향토사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문씨(전 거진중학교 교감)가 언급한 견해로 현화와 해가 배경지로 가장 최근에 주장된 견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열흘을 상회하는 장거리 여행길에서는 출발 후 보통 이틀이 지나면 모두가 지쳐있는 상태가 된다. 특히 목적이인 강릉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여서 비랑에 만개한 아름다운 철쭉꽃을 봐도 큰 감흥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지쳐있는 수행원들에게 목숨마저 위태로운 험준한 암석 비랑 위에 피어난 철쭉꽃을 꺾어 오라고 할 만큼 지혜롭지 못한 수로부인은 아닐 것이다. 현화가 설화 내용 어디에도 수로부인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내용은 없다. 설령 수로부인이 수행원들에게 과도한 청을 했더라도 강릉 태수로 부임해 가는 순정공이 있어 그러한 행위는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 논리적이지 못한 것을 든다면, 현화가 배경지로부터 편하게 이틀을 간 후 나타나는



1.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옥계면 금진리 2. 삼척시 증산동 와우산 기슭 일대
3. 울진군 북면 고포리 4. 울진군 산포리-연지리 5.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골곡포 일대

그림 5. 현화가 배경지로 거론되는 장소: 다음지도 참고

해가 배경지다. 그러나 울진군 고포리와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사이는 매우 험준한 길이어서 ‘편행(便行)’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¹⁰⁾

4. 결론

지금까지 연구자는 『삼국유사』 권2의 성덕왕편 ‘수로부인’에 나오는 ‘현화가’의 배경 설화를 토대로 늙은이가 수로부인에게 꽃을 바친 현화(獻花)의 배경지와 수로부인이 해룡에게 잡혀갔다 돌아온 해가의 배경지(臨海亭)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현화가 배경지와 해가 배경지에 대해 논리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현화가와 해가 배경지로 판단되는 장소를 추정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화가 배경지는 출발지인 경주로부터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영덕군 남정면 골곡포 일대로 판단된다. 골곡포 일대는 현화가 배경설화에서 기술된 지형적 특성과 가장 유사한 곳으로 해발고도 190m에 달하는 암석단애가 위치한다(傍有石峰如屏臨海 高千丈/옆에는 석봉이 병풍처럼 둘러져 바다에 임해 있었고, 높이는 천 길이나 된다). 본 단애는 중생대 백악기 화산암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애 기저부의 돌출부는 거북이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를 더해 준다.

2) 현화가 배경설화에 기술된 문장 중 ‘편행이 일정(便行二日程)’은 현화가 배경지로부터 편하게 이틀을 간 거리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골곡포에서 편하게 이틀을 간 거리라면 약 60km 정도 거리에 있는 월송정이 해가 배경지로 판단된다. 특히 월송정 일대는 신라시대 화랑들의 선유장소 일만큼 경승지라 타당성을 가진다.

3) 강원도의 삼척시, 강릉시 등의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현화가 배경지와 해가 배경지는 지자체들의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 차원에서 무리하게 설정된 경향이 강해 논리적인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삼척시의 경우, 현화가 배경지와 해가 배경지를 동일한 장소에 설정한 것은 현화가 배경설화와는 사뭇 다르다. 또한 강릉시에서 주장하는 현화가 배경지의 경우도 현화가 배경설화와는 논리적으로도 일치하지 않는다.

주

- 1) 통일신라 지방관직의 하나인 태수는 당나라 관직명을 차용한 것으로 신라의 관등 17등급 중 13등급 사지에서 6등급 아찬 사이의 직급을 보임했다(국립경주박물관 내 신라역사관 자료 참고).
- 2) 36년에 달하는 재위기간(702년~737년) 동안 성덕왕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요충지에 성을 쌓는 데 주력했다. 소원해진 당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건당사(遣唐使)를 보내어 많은 성과도 이루었다. 이때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통일신라가 전성기를 누리던 때였다(국립경주박물관 내 신라역사관 자료 참고).
- 3) 통일신라 신문왕 5년(785년)에 진국을 나누어 9주를 설치하고 도독을 파견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본래 신라 땅에 상주, 양주, 강주를 설치하고, 옛 백제 땅은 웅주, 진주, 무주라 하고, 옛 고구려 땅은 한주, 삭주, 명주로 나누었다. 한편, 수도인 경주는 소경(小京)들과 구분하기 위해 금경(金京) 또는 대경(大京)이라 부르고, 중원경(중주), 북원경(원주), 금관경(김해), 서원경(청주), 남원경(남원)의 5소경을 설치했다. 소경에는 사신이란 지방관을 보내어 통치하게 했다(국립경주박물관 내 신라역사관 자료 참고).
- 4) 신라의 오문역은 북서향의 건(乾), 남서향의 곤(坤), 북향의 감(坎), 북동향의 간(艮), 서향의 태(兌) 등 방향을 나타내는 명칭이 역명에 있어 오통의 출발점과 연계성을 가진다.
- 5) 북해통은 오늘날 동해안을 달리는 7번 국도와 유사한 노선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노선은 지형적으로 교통로 발달에 유리한 해안단구, 해안충적지형, 낮은 구릉지 등의 지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당시의 주요 교통로로 활용되었을 것이다(심현용, 2009, 22.; 박방용, 1995)
- 6) 고려 말 우왕은 5만 여명의 군사를 징발하여 요동 정벌군을 구성하였다. 1388년 음력 4월 18일에 서경을 떠난 이성계·조민수가 이끄는 원정군은 19일이 지난 음력 5월 7일에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威化島)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성계와 조민수는 정변(政變)을 모의하여 음력 5월 22일 회군을 결행하고 위화도를 떠난 지 9일 만인 음력 6월 1일 개경 부근까지 진군하게 된다. 이를 후 이성계·조민수가 이끄는 반란군은 개경을 함락시키고 우왕과 최영을 사로잡게 된다. 여기서 평양-위화도 간 거리는 약 300km, 위화도-개성 간 거리 약 500km로 본다면, 요동정벌을 원치 않았던 이성계와 조민수는 실제 300km에 달하는 서경-위화도 간을 낮 시간이 비교적 긴 5월임에도 19일이 소요돼, 하루에 16km 정도밖에 행군하지 않았다. 반면, 위화도 회군 결정 후 우왕과 최영을 치기 위해 행군 속도를 높인 이성계·조민수 군대는 약 500km에 달하는 거리임에도 불과 10일 만에 도달하여 하루 평균 행군속도가 50km에 달하게 되는데, 순정공과 수로부인 행차는 상기 두 가지의 경우를 평균하여 1일 행차거리를 약 33km로 추정하였다.

- 7) 경주 반월성에서 강릉까지 직선상의 개략 거리: 반월성(0)-홍해읍(39km)-현화가 터(57km)-경정리(86km)-영해읍-(96km)-월송정(122km)-망양정(137km)-울진(153km)-증산해수욕장 와우산(220km)-동해시(230km)-강릉시(275km)
- 8) 특히 장거리 여행의 경우 출발한 지 수 일이 지나면 지치게 돼 비록 수려한 경관이 있을지라도 감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울진 이북의 삼척, 강릉 등지는 출발지인 경주로부터 적어도 닷새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여서 많이 지쳐 있을 수행원에게 그것도 험준한 단애에 피어 있는 철쭉꽃을 꺾어 오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 9) 기존 현화가 배경지로 거론되는 내용들은 다음을 참고하여 재정리했다.
김대갑, 절세미녀 수로부인의 유혹, 강릉 현화로, 국제신문, 2007/01/16
김진문의 현화와 울진(<http://uljin7.com/zboard/zboard.php?id=travel&no=33>), 디지털강릉문화대전(<http://gangneung.grandculture.net/>),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울진21(<http://www.uljin21.com>)
- 10) 신라는 울진 나쪽에서 삼척 궁촌 사이에 있는 험난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삼척·강릉으로의 북진은 주춤하였다(심현용, 2009, 24 참고).

문헌

대구은행, 2010, 영남의 옛길, 향토와 문화, 56.
대구은행, 2012, 대구경북 고려역사 문화도감, 향토와 문화, 63.

박방용, 1995, 신라왕도의 교통로-역·원을 중심으로-,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6, 99-118.
심현용, 2009, 고고자료로 본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과 루트, 대구사학, 94, 1-30.
조효식, 2010, 유적 분포도를 활용한 영남지역 삼국시대 교통로와 방어체계 검토, 지역과 역사 26, 5-38.
한정훈, 2003, 신라통일기 육상교통망과 오통, 부대사학, 27, 27-51.
『삼국사기』
『삼국유사』
김대갑, 절세미녀 수로부인의 유혹, 강릉 현화로, 국제신문, 2007/01/16
옛길기행(39), 영덕 7번국도 옛길, 매일신문, 2011/09/21.
김진문, 현화와 울진(<http://uljin7.com/zboard/zboard.php?id=travel&no=33>)
국립경주박물관(<http://gyeongju.museum.go.kr/html/kr/>)
디지털강릉문화대전(<http://gangneung.grandculture.net/>)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울진21(<http://www.uljin21.com>)
(접수: 2014.01.29, 수정: 2014.02.14, 채택: 2014.02.23)